

## 한국의 원주민을 보호하자

지금처럼 가다간 우리나라에 「농촌인」이라는 희귀종족이 생길 판이다. 농촌인을 받아낼 씨받이가 없어 멸종위기에 있으니 말이다. 이름하여 「한국의 원주민」이라고나 할까.

고속도로가 농촌을 우회하여 도시로 빠져버린 탓인지, 아니면 농촌의 현대판 종교의 지옥이라도 되어서인지, 열이면 열 사람 모두 농촌이라면 “글썸-”하는 답변과 함께 팔 걷어부치고 농촌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농촌으로 가는 길이 좁은 탓일까, 아니면 어두운 밤이시커먼 두려움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일까.

농업고등학교 졸업해서 농촌과 거리가 먼 생산공장으로 가버리고, 농과대학 졸업해서 씨비스산업이나 도회지의 사무실 근무로 빠져 버리고, 아이들은 도회지로 유학 보내고, 이렇게 가다간 농촌원주민의 종족 보전이 가능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농촌인을 국보로 정하여 종족(농촌원주민)을 보전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농업 총생산에서 축산물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다. 탈출구가 그 쪽으로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 천길 낭떠러지의 벼랑 위에 서 있는 듯한 감이 든다.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이라는 거센 바람이 농촌인들을 벼랑쪽으로 몰아부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농촌인들은 소쩍새가 되어 날지 않으면 깊은 계곡에 빠져 멸종되고 말 것이다. 지금도 소쩍새처럼 피를 삼키며 절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목소리가 정치하는 이들의 뼈에 닿지 않음은 뼈를 둘러싼 살점이 도회지산업의 영양가로만 살찌워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하여 이들의 귀가 도회지의 소리로만 찌들어 버린 것은 아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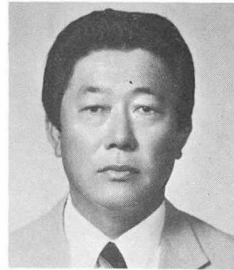
축산인들의 참 목소리를 들어줄 “축산청”이라는 큰 귀가 아쉽다. 지금 한국의 원주민(농촌인)을 보호하지 않으면 1차산업이 식량부기 산업으로 둔갑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의 축산규모라면 예산을 크게 책정해서라도 축산인(농촌인)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축산물의 수입단가가 영구히 낮으리라 고 보는가. 생산기반이 무너졌을 때에도 지금처럼 낮은 단가로 주리라고 보는가.

최근 수입쇠고기에 밀려 우리 축산기반이 크게 풍화되고 있다. 하여 단단했던 암석이 모래벌로 되고 모래벌 위에 축산의 집을 건축하고 있는 꼴로 되고 있다. 수입쇠고기 단가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싼 값이라 해서 명분있는 일이라고 큰 소리 칠 일은 아니다. 수입쇠고기로 인한 현재의 축산물가격 불안정세를 보라. 냉동창고의 돈육 재고품이 수입쇠고기 “저장보급자리”명분에 밀려 홍수 출하돼 돼지고기 가격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현상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

“누군가 해 주겠지”라는 생각이라면 우리 양돈인들이 「한국의 원주민」으로 맨 먼저 등록되고 말 것이다. 농촌인이 민속촌에 갇혀 사는 「한국의 원주민」꼴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한 몸짓으로 꿈틀거려 보자

”



기 정 도

(본회 부회장)

축산업협동조합이 축산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축산물가격을 곤두박질치게 하는 일에 있다고 여기고 싶진 않다. 그러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그러할진대, 이렇게 가다간 축산인의 씨가 마르고 말지 않겠는가. 몇몇 원주민화 된 “축산인촌”을 꼭 이루어 놓고서야 속이 시원하다는 말인가.

이러한 일을 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이라는 말인가. 축산인이 없는 상황에서 수입쇠고기가 비싼 값으로 「고기폭탄」되어 들어 올 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본 처사인지 의심스럽다. 「고기폭탄」이라는 공격을 예방하려면 앞서 말한 “농촌보호차원”의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농촌의 큰 대들보로 되어가고 있는 양돈인들은 농촌을 지키고자 하는 결의를 더욱 다질때이다. 허리띠를 좀 더 졸라매고라도 우리 손으로 「여성잡지사」를 운영해야만 한다. 주부들의 발길이 “양돈센타”로 향하도록 우리가 홍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역 곳곳에 “돼지고기요리 전문회관”을 두어 식사 종류를 50여종 이상 개발하여 고객을 유치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홍보되도록 해야 한다.

휴게소에서 1,000원어치 간식용으로 돼지고기를 고를 수 있도록 가공식품 개발에도 주력해야 되고, 호텔에서 돼지고기를 비싼 값으로 먹고도 후회스럽지 않도록 고급화 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일반가게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돈육가공제품이 있다면 더욱 바람직한 일이다.

이 모두는 누가 해야 되는 것일까. 1차는 양돈인이 해야 될 일들이다. 이것저것 모두 귀찮다라는 식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아니다. “누군가 해 주겠지”라는 생각이라면 우리 양돈인들이 “한국의 원주민”으로 맨 먼저 등록되고 말 것이다.

우리 양돈인이 운영하는 “여성잡지”내용엔 양돈과 연관된 사회 각층의 소리를 담아야 될 것이다. 여성전문연구기관도 설립하여 한국의 여성상, 한국의 주부상을 정립해 주는 일도 우리 양돈인이 해야 될 일이다.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을 때라면 참여하고자 하는 범위가 넓어지지 않겠는가.

양돈 문학상 제도도 만들고 전국의 문학인들의 관심을 양돈쪽으로 기울이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텔레비전 연속극에서도 양돈을 다루는 화제가 자주 등장되도록 희곡 문학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들로 하여금 농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이상적인 농촌상을 정립해 보게끔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여, 농촌인이 민속촌에 갇혀 사는 「한국의 원주민」꼴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한 몸짓으로 꿈틀거려 보자. ●